

## 온누리교회의 공동체

온누리교회는 1997년부터,  
'다락방 목회'를 '공동체 목회'로  
바꾸면서 새로운 개념의  
교구 목회 방법론을 발전시켰다.

### 공동체 목회

온누리교회는 1997년부터 '다락방 목회'를 '공동체 목회'로 바꾸었다. '공동체 목회'는 온누리교회가 발전시킨 새로운 개념의 교구 목회 방법론이다. '공동체 목회'는 지역 중심이면서 동시에 사역 중심이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교구 목회 개념으로부터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공동체마다 담당 교역자, 담당 장로가 있으며, 공동체의 모임과 행사는 공동체 담당 목사를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동체는 작은 온누리교회라고 볼 수 있다. 공동체는 지역을 기준으로 나누지만 독자적인 계획과 일정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목회하며, 공동체마다 독자적인 이름을 정할 수 있다.

### 공동체의 목적

온누리교회는 사도행전의 교회를 이상으로 하고 있다. 공동체는 이 이상을 지역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각 공동체는 지역 교회의 기능을 하는 동시에 연합하여 온누리교회의 2,000명 선교사와 10,000명 사역자의 비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공동체의 철학

온누리교회의 공동체는 각각 하나의 교회이다. 공동체는 온누리교회의 행정과 목회를 돕는 단순한 지역 구분을 넘어서, 하나의 지역 교회로서 교회가 갖는 본질적인 기능들을 갖는다. 이런 점에서 공동체는 일반 교구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체는 심방이나 교인 관리의 차원을 넘어서, 지역 교회적인 사역을 수행한다. 예컨대 세례식과, 제직 선발 및 훈련, 그리고 공동체 특성에 맞는 사역이 각 공동체 별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각 공동체에는 당회 성격의 의사 결정기관인 운영위원회를 두고 공동체의 일들을 논의하며 의결한다. 이처럼 각 공동체는 지역 교회의 기능을 가지면서, 연합하여 온누리교회 공동의 비전을 추구한다. 즉, 온누리교회의 공동체는 독립적인 기능을 갖고 움직이면서, 연합하여 온누리교회 전체가 갖는 2천/1만 비전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 공동체 조직과 운영

공동체마다 다락방과, 순으로 구성되며 공동체 운영위원회가 있다. 이것을 도표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다. 다락방에 속한 순을 잘 돌보기 위하여 다락방마다 다락방장을 세운다.

### 순(筭)

순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다. 순은 가족 중심으로 참여하며, 순장의 인도로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집에서 모인다. 순 별로 수련회와 기도회를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 현재 온누리 교회의 순은 총 441개이다.

### 순의 의미

첫째, 성경에 나타나는 순(筭)은 싹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온누리교회는 1991년부터 '구역'이라는 기존 교회 소그룹 모임을 '순(筭)'으로 바꾸었다. 1991년까지 온누리교회의 성도들은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구역이 편성되었지만, 그 이후부터 거주지역과 영적인 양육 계보를 중심으로 순 모임을 편성하게 되었다. 구역은 지역성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었고, 순은 생명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기 때문에, 온누리교회에서 구역을 순으로 개편한 1991년부터 소그룹 모임은 훨씬 더 생명력 넘치는 모임으로 살아나게 되었다.

둘째, 성경의 순(筭)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

스가랴 선지자는 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스가랴3장8절). 스가랴 선지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순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설명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이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또 예레미야는 23장5절과 33장15절에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의로운 가지'가 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예레미야가 말한 의로운 가지는 한 사람을 의인화한 것인데, 그 사람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그의 날이 되면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을 평안히 거하게 할 것이다. 바로 이 의로운 가지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순이란 생명을 주시며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모임이다.

### 순의 목표

온누리교회의 2천/1만 비전을 이루는 기초 단위인 순은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째, 모든 순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순원의 첫 번째 목표 역시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둘째, 모든 순은 큐티를 생활화하고, 삶을 솔직하게 나누며, 말씀을 실제적으로 적용하여,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셋째, 모든 순은 깊은 교제를 통해 사랑을 나누고 있다. 넷째, 모든 순은 직접 참여하거나 기도와 물질로 온누리교회 1만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 다섯째, 모든 순마다 한 사람 이상의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여 2천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모든 순은 기도하는 모임이다.

### 순의 역할

순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영적인 생명력을 가진 모임으로, 온누리교회가 가진 사도행전적인 초대교회의 꿈을 이루는 기초 단위이다. 순에서는 영적인 생산, 재생산 과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말씀과 삶이 구체적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인 영적도움이 주어

진다. 또 일대일제자양육을 받도록 권면하고, 큐티를 생활화하도록 도전을 주기 때문에 순은 큐티와 일대일제자양육이 활성화되고 뿌리내리는 터전이다. 그러므로 순은 단순한 교회의 한 부분이 아니라 온누리교회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 가정 단위의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다. 순은 온누리교회의 각종 2천/1만 사역을 감당하고 후원하는 역동적인 사역 단위이기도 하다.

#### 순 구성

순은 공동체의 기본 구성 단위이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참여하지만, 여자 성도들만 모이는 순도 있다. 순마다 순장, 권찰이 순을 섬기고 있다. 이들은 공동체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교회가 임명한다. 순장과 남성을, 권찰은 여성을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여성 순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한편 공통된 직업, 기능, 관심, 비전을 가진 성도들로 특별순, 혹은 사역순을 구성하기도 한다. 예배를 섬기는 챔버를 중심으로 챔버순과, 열린 예배 봉사자로 구성된 열린 예배 순이 여기에 해당된다. 사역순은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다.

#### 순 개편과 분순

순 개편은 연초 혹은 연말 등 적절한 시기에, 기존 순원을 섞어서 새롭게 순을 구성하는 것이다. 순 개편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은 공동체 담당 목사가 공동체운영위원회와 상의하여 결정한다.<sup>1)</sup> 일반적으로 2년 이상된 순 가운데 필요에 따라 순을 개편하는데, 구성되거나 개편된지 2년 미만인 순은 개편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순 개편은 공동체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다락방별로 할 수도 있다.

#### 공동체 권사회

각 공동체는 공동체에 속한 권사들로 공동체 권사회를 조직한다. 공동체 권사회는 연락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두며, 정기적으로 모여 기도 모임을 갖는다. 공동체 권사회는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봉사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여자 안수집사들을 이끌고 격려하는 역할을 한다.

#### 공동체 남자안수집사회

각 공동체는 공동체에 속한 남자안수집사들로 공동체 남자안수집사회를 조직하고 있다.

#### 공동체 여자안수집사회

각 공동체는 공동체에 속한 여자안수집사들로 공동체 여자안수집사회를 조직하고 있다.

#### 공동체 운영위원회

온누리교회 공동체 목회의 특징은 ‘공동체 운영위원회’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온누리교회 공동체는 ‘교구’가 아닌 ‘공동체’로서 지역 교회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 운영을 위한 위원회가 조직된 것이다. 공동체 운영위원회는 공동체 담당 목사와 공동체 장로 그리고 다락방장이 참석하는 모임으로서, 공동체 목회에 관련된 전반적인 일을 기획하고 추진한다. 공동체 운영위원회는 선교, 양육, 사역, 심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 가운데 선교

1). 공동체 담당 목사는 순 개편 일정과 순장 선임, 순원 배정 등 순 개편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기존 순장 및 다락방장과 상의하며, 순원들의 의견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담당자, 양육담당자, 사역담당자, 심방담당자를 두는데, 각 담당자는 공동체 안의 선교, 양육, 사역, 심방을 지원하며, 적극적으로 돕는 역할을 한다. 공동체 운영위원회는 위의 일을 담당할 공동체 장로와 다락방장 이외에 운영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 공동체 장로

해당 공동체 지역에 거주하는 시무, 사역 혹은 협동 장로 중에서 당회가 임명한다. 공동체 장로는 공동체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공동체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며, 공동체 권사회와 남,녀안수집사회를 지도한다. 담당교역자와 함께 공동체 양육과 사역에 책임을 진다. 특히 환자 심방 및 경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관심을 보인다.

#### 다락방장

공동체 장로 또는 안수집사 중에서 당회가 임명한다. 다락방장은 순장을 겸임할 수 있다. 다락방장은 다락방 소속 순과 순장을 돌보는 일을 맡는다. 다락방장은 공동체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공동체 운영에 참여하며, 공동체 담당교역자와 순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 순장

순장은 일대일 지도자 과정을 이수한 안수집사 가운데 당회가 임명한다. 순장은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실질적인 지도자로서 신앙과 인격으로 덕을 세워야 하며,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순원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또한 순의 지도자로서 순원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돌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순원의 일대일제자양육 상황을 점검하며, 큐티를 생활화하도록 격려한다. 순장은 순 사역과 순원의 형편에 관해 순장은 자주 공동체 담당 목사와 의논한다.

#### 순모임에서 예배 인도

순장은 금요일 순모임에서 순예배를 인도한다. 순예배 인도를 위해 공동체마다 매주 1회 순장모임을 갖고 있다.

#### 순원 심방

순장은 개인적으로 전화, 방문 심방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순원을 돌본다. 필요할 경우 공동체 담당 교역자를 도와 각종 심방 일정을 계획하고, 심방에 동행한다.

#### 새 가족 심방

새 가족이 온누리교회 새신자과정인 온누리반 1주차에 참석하면, 공동체 담당 교역자는 명단을 받아서 순에 임시 편성하고 순장에게 통보한다. 그러면 순장은 새 가족을 순모임에 초청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안내한다. 새 가족이 온누리반 7주 과정을 모두 마치고 온누리교회에 등록하면 공동체 담당 교역자는 정식으로 순에 편성한 뒤 그 사실을 주보에 게재한다. 그리고 순장은 필요한 경우 공동체 담당 목사 또는 심방 사역자에게 새 가족을 심방해 주도록 요청한다.

순장의 새 가족 심방 사역을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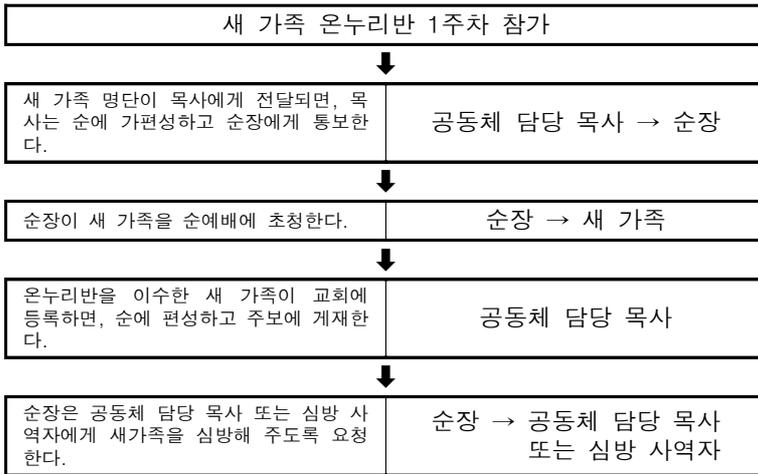


표 2 순장의 새 가족 심방 사역

**권찰**

권찰은 순장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가 임명한다. 권찰은 순장과 함께 순을 심방하고 순원들을 사랑으로 돌본다. 또한 순모임 및 모든 행사의 안내와 통신을 담당하며, 순모임 일지를 작성하여 교회에 보고하고, 순모임 헌금을 관리한다.

**심방사역자**

공동체 담당 목사의 행정과 심방을 돕는 사역자로서 전통적인 교회의 여전도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 교회는 공동체에 소속된 평신도 중에서 인격과 사역능력을 갖춘 2-4인을 선택해서 소정의 훈련과정을 마친 후에 심방 사역자로 임명한다. 이들은 등록 과정을 마친 새 교인을 공동체의 순모임에 연결시켜주고 돌보는 일과 환자를 심방하는 일을 주로 담당한다. 주중에 2-3일을 봉사하며 사례를 받지 않는 자원봉사자들이다.

**지도자 훈련 과정(LTC, Leadership Training Course)**

공동체에서 선출된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장로 후보자를 위한 지도자 훈련 과정은 6개월, 권사와 안수집사 후보자를 위한 지도자 훈련 과정은 3개월 동안 진행되며, 강의와 독서, 과제물 제출과 실습, 그리고 40일 새벽기도 참석 등의 훈련이 행해진다. 공동체 책임 목사가 지도자 훈련 과정을 담당하며, 직분별 지도자 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지도자 훈련 과정마다 각각 담당 장로를 임명한다. 지도자 훈련과정 수료자에 한하여 임직한다.

**순장학교**

온누리교회 공동체는 순장 계속 교육과 예비순장을 훈련하기 위하여 순장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순장학교는 매주 1회씩 9회 모이며, 큐티와 큐티 나눔, 소그룹 운영, 상담, 리더십 등 실제적인 강의를 중심으로 독서와 과제물 제출 그리고 실습으로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공동체는 순장학교를 통하여 실제로 소그룹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양육하고 있으며, 훈련된 예비순장에 한하여 순장으로 세우고 있다.

#### 순장목양대회

온누리교회 공동체는 각 순을 담당하는 순장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연 1,2회 1박 2일로 순장목양대회를 갖는다. 순장목양대회는 말씀집회와 함께 소그룹 모임을 발전시키기 위한 토의, 발표 및 실습, 기도회로 진행한다.

#### 순모임의 목적

교회 속의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순은 매주 금요일 저녁 시간 모여 순장의 인도로 예배 모임을 갖는다. 매주 순모임을 갖는 이유는 주일 예배에서 미처 나누지 못했던 삶을 깊이 나누고, 한 주일간 큐티한 것을 함께 나누면서 진정한 교제를 나누기 위한 것이다.

#### 순모임의 실제

순원들의 각 가정을 돌아가며 순방하며 가능하면 빠지는 가정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 모임의 성격에 따라서 별도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경에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형편에 따라 순원들의 합의로 다른 요일이나 낮시간에도 모일 수 있다. 모임은 2 시간 정도 진행하고, 끝날 때 장소를 제공한 가정의 형편과 기도제목에 관심을 갖고 축복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권찰은 다음 모임 장소를 의논하고 알려주어 준비하는 가정이나 방문하는 순원들을 도와야 한다. 예배 장소를 제공하는 가정은 예배 후 교제를 위한 간단한 다과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겸소한 차림으로 하며, 잘 대접하려는 경쟁심은 바람직하지 않다. 좀 더 계속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정리하는 절제가 필요하다. 또 외딴 믿음이나 자녀 문제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먼저 귀가하는 순원이 있을 경우 즐겁게 보내주어야 한다.

#### 순모임 종강과 순 방학

순모임은 현실과 영적 재충전을 위하여 매년 2번의 학기와 2번의 방학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1학기는 2월 첫째 금요일 개강하여, 6월 마지막 금요일 종강한다. 2학기는 9월 첫째 금요일 개강하여, 12월 성탄절 전 주 금요일 종강한다. 그러나 순 개강과 종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 순 방학을 이용하여 순끼리 수련회를 갖거나 아웃리치를 떠나기도 한다.